부호장공파종회(副戶長公派宗會) 정기총회

부호장공파종회(회장. 권병균)는 1월 20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족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아침부터 눈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권정달 안동권씨 대종원 총재와 권인호 고문, 권영구 원로, 권영세 안동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권중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상읍례(相揖禮), 회장인사, 전차 회의록 낭독, 2013년도 감사 및 결산보고, 2014년도 예산(안) 승인,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동시 태화동 일월정에서 부호장공파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다.

권병균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눈이와서 족친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하고 "오늘은 조상을 숭배하고 족친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여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는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권정달 총재는 축사에서 "옛날 총회 때는 족친들이 많이 오지 않았으나 지금은 족친들이 많이 참여하여 단합된 결속력을 보이고 있어서 아주 좋다"며 "안동권씨 15개 파 중 일부 파에선 사당이나 설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부호장공파는 제단을 만들어 비석을 세워 파조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지 않는냐"는 생각에 진지하게 토의할 것을 주문했으며 특히 대종원의 후임총재 문제도 시기가 되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토의 사항에 일원정 주변의 개발과 이전문제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해서 처리키로 했다.

회의가 끝난 점심시간에 권영세 안동시장이 회의장에 도착, 축사를 통해 "처음 먹은마음 변치않고 시정(市政)을 잘 해 나가겠으니 문중 어른들이 도와주고 채찍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부호장공파종회 부녀회(회장. 조선행) 회원들이 정성들여 만든 곰탕을 점심 식사로 제공했는데 권정달 총재는 수고한 부녀회원들에게 즉석에서 금일봉을 전하기도 했다. 부녀회 조 회장은 맛있고 특이한 비빔밥을 만들어 지난해 '안동권씨종보'는 물론, MBN, SBS, Hello TV 등에 방영되는 등 음식솜씨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석자 전원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해산했는데 권인호 고문이 준비한 '주방용품'을 선물로 나눠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정조공파 고려조 權正平 墓誌銘 설명회
(권정평) (묘지명)

고려 초중기 권정평(權正平) 묘지명 발견에 대하여 정조공파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설명회를 갖는 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조공파종회(회장. 권인탑)는 1월 8일 오전 11시 안동시 동부동 정조공파회관 사무실에서 권영목대종원고문, 권경웅대종원 전례위원장, 권인탑회장, 권영선. 권기만. 권오탁. 권기룡 고문, 정조공파 종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 의종조 태자소첨사 권정평 묘지명 발견>에 따른 설명회와 대책회의를 가졌다.

◇권인탑정조공파 종회장이 고려조(권정평) 묘지명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토지주택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권정평 묘지명은 가로 60.6cm, 세로 36.5cm의 장방형 모양의 테두리에는 매우 얇은 선을 둘렀으며 행을 구분하는 선도 약하게 그어놓았다. 명문은 해서체로 전체 24행에 걸쳐 쓰여 있는데 해당 글자수는 불규칙하다. 이 묘지명은 북한에 있는 개성시 장단에 위치한 천화사(天和寺) 동쪽산에 매장되어 있던 것이 근년에 도굴되어 중국의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묘지명이 발견됨에 따라 추밀공파조 추밀원부사 휘 수평의 아들 충헌공 한림학사 위가 고종조 초에(1214-1259) 권씨로서는 최초에 문과급제 한 것으로 족사에 기록되었으나 그보다 1세기 (100년) 앞서 시조 태사공의 6세 손으로 밝혀진 좌주공(權適)이 예종12년(1117년) 중국황제의 친시에 1위로 급제하였고 또 권정평이 중앙에 진출해 등과 하고 현달 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그는 향리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약관의 나이에 향시(鄕試)를 치른 뒤 개경으로 올라가 남산도(南山徒)의 강신재(講信齋)에 들어가 학업을 닦았다. 이 묘지명을 써준 오세공(吳世功)도 권정평과 같은 남산도 강신재의 학생이었다고 묘지명 말미에 밝혀져 있어서 이와 같은 기록이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권정평의 호는 무루(無累)이며 854년 전 고려 선종2년-의종14년(1085-1160) 76세까지 살면서 생몰년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같은 모든 자료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조공파종회 사무실에서 능동춘추 주필 권오훈씨를 초청, 경위와 소견을 청취하는 간담회에서 나왔다.

정조공파 권인탑 회장은 "토지주택공사 박물관에 있는 선대의 묘지명 원본을 탁본하고 성균관이나 대학 등 권위있는 사학자를 초청, 깊이있게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영목 고문은 지난해 회의에서 구 보첩을 가져와 시조의 현손이자 정조공의 6대조인 호장동정 겸한(謙漢)이 구보에 한겸(漢謙)으로 나와 있는 점을 들어 동 묘지명에 정평(正平)의 증조로 새겨 나오는 한렴(漢廉)과 동일인으로 비정된다고 하였다. 또 겸한의 아들 위융(位融)이 묘지명(墓誌銘)에서 정평의 조부로 나오는 융(融)과 동일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같이 하였다. 따라서 정평의 부친 경(暻)을 위융의 지차남으로 계대하여 정평을 시조의 6세손으로 하였다. 부연하면 현재 보서에는 4세 겸한(謙漢) 5세 위융(位融) 6세 안굉(安宏) 7세 혁(奕) 8세 입평(立平)으로 정조공파와 호장공파가 계대를 같이 하고 있다. 정조공파는 학자들의 고증을 거치며 동조인 호장공파와 연석회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연천군 지신공(知申公)향토문화재 20호 등록

경기도 연천군은 2013.11.20 증 자헌대부 우의정 희(憘)의 묘소를 향토문화재 20호로 등록하였다.

지신공 휘 희(憘)는 추밀공파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복(復)의 현손 남강공(南岡公) 상(常)의 셋째아들로 호는 남악(南嶽)이며 명종 2년 1547년 출생하였다. 선조원년 1568년 무진에 진사가 되고, 동 17년 1584 갑신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된 후 종묘서령(宗廟署令)이 되었는데, 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평안도로 피난할 때 역대왕의 신주와 어보(御寶)를 안전히 모시고 행재소(行在所)에 도착하였다. 선조 36년 1603년 주청부사(奏請副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온 후 도승지(都承旨) 대사간(大司諫), 충청도 관찰사와 형조참판(刑曹參判)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역임하였다. 인조 2년 이조판서를 배하였으나 병이 깊어 나가지 못하고 78세에 졸하니 우의정으로 추증하였다.

명장(明將)의 접반사(接伴使)로 재임하던 1597 정유에 안동 태사묘(太師廟)를 성배(省拜)하고 《남악기南岳記》를 지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의 묘소는 안동부(安東府) 서후면(西後面) 검제(黔堤)의 천등산(天燈山)에 있으니 부(府)로부터 20여 리 상거한 곳이다. 정유년 겨울에 희憘가 명나라 장수 이방춘(李芳春) 부총병(副總兵)의 접반사(接伴使)가 되어 이곳 부사(府司)에 이르러 곧 주과(酒果)를 갖추고 제문(祭文)을 지어 가지고 공의 묘소를 성배 하였더니 묘아래 수리허(數里許)에 거주하는 권 씨 성의 지방민 10여 인이 와서 참사하였다. 묘 옆에는 큰 사찰이 있는데 이것이 곧 봉정사(鳳停寺)라 하는 절이다.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산64 남악공묘.

지신공의 묘소는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삼정동(三井洞)에 있다.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이 비문을 짓고 증손자 환(瑍)이 묘지(墓誌)를 지었으며 미수(眉叟) 허 목(許穆)이 비문의 글씨를 썼다.

〈화산부원군종회장 권정택〉

부정공파 부산파친회 정기총회 개최

2014년 1월 11일 12시 연산동 은성숯불에서 회원 30명이 참석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본회를 위해 17년간 회장직을 수행한 權應奎회장은 부산종친회 자문위원으로서 훌륭한 서예가의 기량으로 부산종친회 회관에 文忠公 陽村 權近先生 사자명을 게시하므로서 權門에 큰 가르침이 되고 있으며 이제 후진에게 회장직을 넘기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본회뿐만 아니라 부산종친회 발전에 자문하겠다고 인사를 했다.

후임 임원으로 회장:權丙南,부회장:權相欽.權寧寅.權淑伊씨가 추대되었다. 權寧寅 부회장은 2014년1월6일 부산종친회관 건립성금 일백만원을 협찬했으며 權相欽부회장은 지난 1월 8일 부산종친회 신년하례회시 서예가의 기량으로 權門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는 立春捷書 220부를 협찬하는 등 종사일에 봉사마인드로 임하였다. 權丙南 신임회장의 희망찬 새해라는 건배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오찬을 하고 폐회하였다.

◇부정공파 부산파친회 정기총회 개최 후 임원진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권용섭 사무국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취임

권선주(58) 기업은행장이 한국의 첫 여성은행장으로 지난해 12월30일 취임했다. 권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내와 단호함으로 엄동설한을 이겨내는 매화(梅花)와 같은 존재가 되겠으며 세상을 녹이고 봄을 부르는 은은한 향기로 조직내 소통과 화합을 이뤄낼 것" 이라고 말했다.

권 행장은 경기여고와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1978년 기업은행 공채 17기로 입행하여 최초 동대문지점의 창구업무를 시작 은행업무 35여년에 국내은행 역사상 첫 여성행장이 된 그는 '여성 최초' 라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첫 여성1급 승진을 시작으로, 지역본부장·부행장 등 승진 때마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특히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지원 등에서 기업은행이 기업은행다운 역할을 하고 있다 는 평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원로 방송인 송해씨를 기용, "기업은행은 기업만 이용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TV광고가 빅히트를 치고, 설국열차·베를린·연가시 등 화제를 모은 영화와 TV 드라마 등에 투자해 문화 콘텐츠산업을 지원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영화 '연평해전' 제작에도 투자했다.

(2013.12.25조선일보 인용)

결국, 마지막 인선 단계에서는 내부승진으로 여성대통령 시대에 첫 여성은행장이 탄생하는 것이 모양이 좋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권부행장을 임명 제청, 대통령 임명을 거쳐 52년 역사를 가진 기업은행은 물론, 국내 시중은행 국책은행을 통틀어 첫 여성행장으로 임명되어 권문(權門)의 딸로 신년초 낭보를 안겨 주었다.

◇권선주 IBK 행장의 지난해 12월 30일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취임사 모습.

〈권범준 홍보부장〉

포스코 회장에 권오준 사장 내정

임직원 3만4000명, 자산 규모 83조 원(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재계 순위 6위(공기업 제외)인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에 권오준 포스코 사장(64, 영주, 35(世) 검교공파·기술총괄장)이 내정됐다.

포스코 이사회는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권 사장을 차기 회장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권 사장은 이사회 직후 "주주총회(3월14일)를 거쳐 회장으로 선임되면 포스코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1950년 경북 영주에서 4남1녀 가운데 둘째로 태어나, 서울大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大에서 금속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6년 포스코 산하 기술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 입사 했으며, 포스코기술연구 소장과 RIST원장을 지내면서 자동차강판·전기강판 같은 고부가가치 강(鋼)과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일역을 맡았고, 배터리 필수 소재인 리튬을 염수(鹽水·소금물)에서 직접 추출하는 신기술도 개발한 기술통이다. 장영실賞(1996년) 대한금속학회賞(1996년), 기술경영인賞(2013년) 등 각종 賞을 휩쓸었다. 권 사장의 성격은 온화하며 의지가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씨의 부인인 박충선 대구大교수는 "남편은 每日 새벽6시에, 회사에 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복 편집위원〉

雲谷書院誌
(운곡서원지)

〈지난호에 이어〉

2. 운곡서원 연혁(雲谷書院 沿革)

저희는 간절히 엎드려 생각건대 본 고을의 선배 귀봉공(龜峯公) 권덕린(權德麟)은 곧 태사공의 어진 후손이며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선생의 학도인데 연원의 학문과 실천해온 바의 독실함이 서원의 기록과 고을의 비석에 반반(班班)히 실려 있어 계고할 수가 있고 또한 현인(賢人 : 스승인 회재 이언적을 가리킨다)의 사당을 창도해 세우고 사문(斯文)을 흥기시킨 일로 우리들이 지금껏 내려 받고 있는 것이 많은지라 일찍이 50년 전에 향사(鄕祠)를 지금의 운곡에 세웠으나 방금(邦禁)으로 철폐되어 자손의 원한과 유림의 억울함이 오래일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추원(追遠)의 새 사당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니 일이 모여 발하는 것이 실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귀봉공을 한 사당에 배식(配食)한다면 비단 신리(神理)와 인정에 실로 협흡(協洽)할 뿐만 아니라 어찌 태사공을 거듭 빛나게 함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구구히 미혹한 견해로 여러 군자의 한 문중 일에 감히 참견해 말씀드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다만 생각하기를 귀봉공은 곧 회재 문하의 연장자로서 공(功)이 있고 운곡은 또 전날 귀봉공의 묘우(廟宇)를 세웠던 유허인즉 지금 태사공을 봉안(奉安)하는 때를 당하여 옥산서원(玉山書院)의 사림(士林)이 되는 자로서 어찌 다른 남의 사당으로 보아 당연히 말을 해야 할 바에 침묵하고 있어서 옳은 일이겠느냐' 고 하였다.

봉화(奉化)의 유곡(酉谷) 종중에서는 능동재사에 글을 올려 '귀봉공(龜峯公)을 철식(啜食)케 하는 의논에 이르러서는 비단 사림의 공의가 먼저 나왔을뿐만 아니라 도리와 인정으로 지극히 윤협(允協)하니 대저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느냐' 고 하고 또 죽림공(竹林公)을 배향하는 일도 훌륭한 일로 전폭적으로 찬양하다는 뜻으로 '이번에 귀봉공과 더불어 시조의 사당에 아울러 배식(配食)하여 대조(大祖)와 어진 자손이 명명(冥冥)한 가운데서 서로 감응케 한다면 어찌 신도(神道)에 윤합(允合)하고 후손의 정리(情理)에 유감스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 하였다. 함창(咸昌)의 종중에서도 권박(權樸) 등 15인이 연명으로 통문을 보내 '저희는 각처에 흩어져 있어 비록 일을 도탑게 하는 계제에 상역(相役)으로 돕지 못하였으나 지금 갖춘 온갖 의식을 새로이 거행하는 날에 감히 나아가 분주히 달려 이르는 차례의 말석에 참례하지 아니하겠습니까마는 다만 도로가 상당히 멀고 일의 연고가 팔꿈치를 잡아당기는지라 한 사람을 일으켜 보내면서 홀로 여러 종현께서 멀리 힘써 깨우치신 뜻을 등지게 되니 문득 부끄러운 마음 간절하다' 고 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각처에서 조전(助錢)과 헌성(獻誠)하는 재물이 속속 들어왔다. 정조 8년 갑진년(1784) 12월에 의령(宜寧) 종중의 통문과 조전을 보내온 것을 비롯하여, 예천의 신당(神堂) 종중과 순흥(順興) 종중 및 안동의 금계(金溪) 종중에서 각기 조전을 보내왔고, 이듬해 정조 9년 을사년(1785) 정월에는 노당(魯堂) 문중에서 포사(庖舍) 5칸을 지을 묵은 재목을 헌납하였고 강당을 지을 재목을 직동(稷洞)에서 매입하니 왕신리(旺信里) 두동(頭洞)의 권동준(權東儁)과 권동신(權東臣)이 각각 사유로 기른 나무를 벌목해 헌납하였다. 2월에는 단성(丹城) 종중의 통문과 조전이 오고 삼가(三嘉) 문중과 진해(鎭海)·고령(高靈)·경산(慶山)·언양(彦陽) 종중에서 각기 조전이 들어왔다.

〈다음호에 계속〉

독립운동과 권오설의 등장 ③

〈지난호에 이어〉

권오설은 6월 7일에 종로경찰서에 체포된 뒤 힘든 재판과정을 거쳤다. 판결이 마무리된 것이 1928년 2월이니, 무려 20개월 동안 미결수 생활을 버텨내야 했다. 그는 고문에 항거하며 투쟁을 벌였고, 큰 동생 권오기가 옥바라지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더러는 안동출신 동지인 김남수가 사식을 들여보내며 옥바라지를 도왔다. 김남수는 통일조선공산당이라는 3차당 활동으로 말미암아 구속되기 이전까지 권오설을 지원하였다. 7년형 구형에 5년형을 선고받은 권오설은 감형이 되어 1930년 7월에 출옥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출옥 100일을 앞둔 1930년 4월 17일, 그는 서대문형무소에서 갑자기 순국하였다. 신간회 서울본부로 운구된 시신은 온통 두드려 맞은 피멍 투성이었다. 일제 간수에게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구타가 사인이 되었을까. 왜 이 무렵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에는 동생 권오직과 관련되었을 것 같다.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던 1925년 권오설이 앞장서서 모스크바에 유학생을 보냈다. 이는 정확한 이론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있어야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 가운데 동생 권오직이 들어 있었다.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한 권오직은 1929년 국내로 잠입했다가 붙잡혔다. 그리고 얼마 뒤 권오설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그렇다면 권오직이 붙들리고, 그 연관성을 캐묻는 일제취조에 권오설이 끝까지 버티다가 참혹한 최후를 맞은 것이라 짐작된다.

4월 20일 서울에서 장례가 치러졌다. 유해는 고향으로 향했고 얇은 나무관을 두꺼운 함석으로 봉한 관은 가일마을 앞 공동묘지에 묻혔다. 봉분도 만들지 못했다. 일제 경찰의 집요한 방해와 압력 때문이었다. 장례 행렬에 참가한 인물들에게도 압력이 가해졌다. 그 뒤로는 비바람만이 묘소를 스쳐갈 뿐이다. 그의 이름을 역사무대에 다시 불러내기까지 70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

사회운동에 뛰어든 가일마을 청년들

가일마을 청년들에게 권오설은 신선한 바람을 일깨워준 인물이다. 8부자댁은 대개 청년들을 서울로 유학 보냈다. 이 가운데 권오상은 가일마을에서 가장 세가 좋은 수곡파의 종가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는 누가 보아도 가일마을의 권씨문중을 대표할만한 청년이었다. 그가 중앙고보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수리과數理科 1학년이 되어, 마을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권오상은 1925년에 창립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 가입하여 10인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또 서무부 집행위원으로 활약하였다. 또 그는 신흥청년동맹과 혁청단革淸團에도 참가하였다. 더구나 그는 권오설의 추천으로 조선공산당원이 되고, 제7야체이카에 소속되어 움직였고, 특히 권오설이 책임비서를 맡은 고려공산청년회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니 권오상은 권오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활약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6·10만세운동에서는 권오설이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이 권오상이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를 중심으로 격문을 살포하고 잠적하여 한 동안 일제의 집중적인 추적을 받았다. 그러다가 8월 1일 안동경찰서에 붙들린 그는,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옥고를 치르다가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자, 1928년 5월 15일 병보석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났다.

〈다음호에 계속〉